

인간관계를 통한 심성발달과 심성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신 현 순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1. 서 언

인성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shaping 되는 것인가에 대한 Nature versus Nurture의 논란은 오래동안 다루워진 문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발달을 논하고 이해하자는 주제에 따라서 Nurture에 초점을 맞추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심성발달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서 이러한 문제를 다룬 연구들 중에서 세 학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겠다. 즉 Abraham Maslow의 “욕구의 위계”(Hierarchy of needs)와 Erik Erikson의 “인간의 8단계설”(8 Ages of Man)을 연계해 보고싶고 그러한 이론상의 설명을 실제적인 실험관찰의 연구결과로 제시한 Diana Baumrind의 부모상을 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이그러지고 왜곡된 인간관계 경험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 범죄를 저지른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을 위해서 심성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겠다.

1. 심성발달에 대한 이론적 설명

Chess와 Thomas(1968)의 longitudinal study를 통해서 설명하는 신생아의 기질적인 특징은 어른이 될때까지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자신의 심성발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겠고 또한 John Steinbeck의 소설 “East of Eden”에 나오는 여주인공 Cathy의 타고난 악마적 심성은 그를 둘러싼 환경탓이라고 돌릴수 없도록 묘사되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겠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람의 심성이 어떻게 무엇의 영향에 의해서 변질되며 또는 파괴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1) Maslow의 Hierarchy of needs

사람은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하고 그 욕구가 구에 의해서 얼마나 만족하게 충족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또는 자아구현이 규정된다고 Maslow는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단계적인 기본욕구를 신체적(음식, 수면), 안전(질서), 소속감과 사랑(가정, 우

정), 자존감(자기존경, 인식), 그리고 자아실현 — physiological needs, safety needs, love needs, esteem needs, self-actualization — 으로 구분했고 이러한 욕구는 자신이 아닌 Sullivan이 일컫는 “significant other”에 의해서 충족되어지며 그 “significant others”의 역할, 그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심성이 왜곡되거나 또는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발달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원래 personality라는 말은 라틴어의 per(통하여)와 sonare(말한다)에서 나왔다. 즉 인성이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며 또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발달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다. 신경정신과 의사인 Goldstein이 쓰기 시작한 self actualization이라는 말은 “유기체라는 것은 통합된 전체이기 때문에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작은 자극이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을 가지며 유기체인 인간은 동물적 욕구도 충족해야 하지만 2차적인 안전과 소속감 및 사랑, 3차적인 자존감과 자아구현의 욕구도 공히 충족할 수 있어야만 인간다운 심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라는 옛말처럼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원만한 심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난 가을 어느 토요일 오후에 있었던 여의도에서의 연쇄살인적 난폭운전사건의 장본인은 그의 신체적 욕구나 안전과 소속감의 욕구도 충족해보지 못한 아동기를 거쳐서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아울러 기득권자들에 대한 질투심을 해소하지 못한 이그러진 심성의 소유자였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의 것처럼 왜곡된 사회관을 타고나지는 않았고 성장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야겠다. Maslow의 말을 빌린다면 “인간의 내적 본성은 본래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중성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선한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지에 있어서 인간의 선한 내적 본성이 좌절되었을 때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인간은 사랑 받을 수 있으며, 고상해질수 있고, 창의적일수 있으며, 최고의 가치와 포부를 추구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이혜성 역, 1982). 또한 같은 시기에 대구의 Disco장의 방화범은 영농후계자로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명예에 대한 인정을 받고싶은 “자존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막연한 보복심리때문에 이성을 잃을 정도로 심성이 좌절되고 강박해지게 되었었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significant other”는 누구이며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Erikson의 사회심리학적 ‘인간의 8단계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Erikson의 ‘8 Ages of Man’

사람의 심성은 대상의 신뢰할 수 있는 역할에 따라 발달하고 신뢰가 기초한 인간관계는 각 단계마다 주된 역할을 해주는 대상의 긍정적인 역할때문에 긍정적인 자아상, 곧은 심성이 자리잡게 된다고 보겠다.

신뢰(Trust)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는 신생아와 어머니 사이에서 시작된다. 먹고 자는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머니 혹은 어머니 역할을 맡은 성인이 아기의 욕구수준에 맞게 베풀어주고 그 베풀음을 사랑과 기쁨으로 할때 아기는 그 “significant other”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와는 반대로, 아기의 기본적 생존욕구가 만족할 정도로 충족되지 못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뒤바뀌거나 또는 마지 못해서 기계적으로 수행

할때 아기는 자신과 대상에 대한 긍정적 “상”(image)을 내면화 할 수 없게 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초기단계의 관계성을 Bowlby는 ‘Attachment’라는 용어로 함축시켰고 이러한 경험이 결핍된 아동은 장차 “도둑”이 된다는 연구를 제시했다(Bowlby, 1961, 1971).

유아기에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인간관계는 ‘자율성’(autonomy)으로서 유아의 배설기능을 자율적으로 다루고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장려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유아의 ‘자율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Erikson은 설명하였다. 유아의 신체적 기능의 자율성이 저지되거나 강요당할 때는 ‘수치감’(Shame), 즉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상”을 내면화시키게 된다고 보겠다.

유치원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아동의 관심은 “놀이”(Play)이다. 호기심과 창조성, 그리고 탐색욕이 가장 중요한 욕구로 나타나는 이 시기에 “Significant other”의 허용적이고 지원적 역할은 아동에게 ‘술선성’(Initiative)을 경험시켜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와는 반대로 아동의 호기심과 탐색욕이 무시당하거나 저지당할 때 그는 ‘죄책감’(Guilt)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겠다.

학령기 아동은 무엇을 만들고 성취하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교사와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성이 이전단계의 어머니와의 관계성을 대체하게 되는 이 시기에는 ‘수용’(Acceptance)과 ‘승인’(Approval)의 경험을 통해서 ‘근면성’(Industry)을 내면화 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때는 ‘열등감’(Inferiority)을 가지게 된다고 하겠다. 다른 사람, 특히 교사와 동료들의 수용과 승인 받지 못한 아동의 심성은 긍정적이고 선하게 발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청소년기에 들어선 한 인격체는 자신의 이상과

승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웅이나 존경할만한 성인의 ‘상’(Image)을 찾아가지고 싶어하게 된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격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은 삶의 질과 의미를 주체적으로 정립하고 싶어지고 간섭은 싫지만 관심은 필요로 하는 ‘자기모순적 욕구’로 인한 갈등과 회의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방황하고 반항하는 10대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긍정적인 자아상과 숭배할 수 있는 “Significant other”를 접할 수 있는 청소년은 뚜렷한 ‘자아정체감’(Identity)을 구축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때는 ‘역할혼동’(Role confusion)을 경험할수밖에 없는 패배감과 아울러 현실감을 잃게되어 비관적인 사회관을 통한 반항과 비행 및 범죄에까지, 더 나아가서는 자살까지 주저하지 않게 되는 ‘자아상실감’ 또는 Durcheime이 일컫는 ‘기준부재’(Anomie)를 실감하게 된다고 하겠다.

남여간의 절친감(Intimacy)을 원만하고 건전하게 경험하고 발전시키게 되는 청년기가 되면 지금까지의 인간관계 경험을 통한 신뢰와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성이 발달되지 못한 사람은 이성을 자신의 동물적 욕구충족의 대상으로만 보고 인격적인 교류나 원만한 결혼대상자로서의 미래지향적인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게 되고 또한 이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격리성 내지는 기피성 때문에 고립성을 면하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장년기에 이르면 가족, 친지 및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하게 되어야겠지만 긍정적인 심성의 발달이 미흡한 사람은 인색(Stagnation)한 인간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베푸는 삶(Generativity)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 ‘궁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고 Erikson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가 되면 삶의 풍요로운 수확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성(Integrity)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생동안 경험해 온 긍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심성이 요구되지만 심성이 약해졌거나 부정적으로 발달되어 왔다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절망감과 원망만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패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산업사회가 만들어 놓은 물질만능주의, 인간의 동물적 욕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퇴폐문화, 즉흥적이고 일차적인 욕구에만 길들여진 Lost Generation의 심성은 공허하고 황폐해진, 죽은 사람과 같이 경직되고 무감각한 상태임을 필자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소년과의 project인 심성훈련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면서 실감한 사실이다.

3) Baumrind의 부모상

그렇다면 심리학도가, 교육자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Baumrind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령전 아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심성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또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아동의 심성양태에 따라 부모를 세그룹으로 나누었다. 즉 권위있는 부모(authoritative), 권위주의적인 부모(authoritarian), 그리고 허용적인 부모(permissive)이다. 첫째 그룹은 아동의 뜻에 귀기울이며 이치에 맞게 따뜻함을 보여주어서(warm, rational, receptive to child's communication) 아동이 self-reliant, self-controlled, explorative, content한 자율적인 심성을 배양했고, 둘째 그룹은 무관심하고 지배적이어서(detached and controlling) 아동이 불만스럽고 위축되며 불신하는 심성(discontented, withdrawn, distrustful)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셋째

그룹은 무사위주로 요구하지도 지배하지도 않기 때문에(non-controlling, non-demanding) 자립성이 없고 탐구성이 부족한(least self-reliant and explorative) 아동을 배출하게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아동의 심성은 첫째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발달하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교육을 통한 교사의 영향력과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비쳐진 가치관과 사회상을 답습하게 된다고 보겠다.

입시위주의 교육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3 병에 걸린 이 사회와 부모에게 심성공고 자율적이며 삶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청소년들이 성장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을 던져 본다.

2. 심성훈련 프로그램

이와 같은 학교경쟁에서 낙오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실상에 대한 처방은 무엇일까?

법무부 소년과는 1989년 부터 전국의 11개 소년원 가운데 4곳을 선정하여(춘천, 대전, 청주, 충주) 소년원생을 위한 심성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1년에 8회에 걸쳐서 매회 3일간 12명의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14번에 걸친 집중적 T-group을 통한 영성 훈련, 심리치료, 또는 상담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필자는 1990년 대전 소년원의 심성훈련 프로그램을 맡아서 5회에 걸쳐서 총 60명의 소년원생에게 실시한바 있었고 그때 사용한 프로그램을 어떠한 심리교육적 근거에서 고안하였으며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수록하려고 한다.

1) 심성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

필자는 정서장애아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미국

New Jersey주의 Newark에 위치한 비행 및 범죄 청소년을 위한 기숙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일한바 있고 정규 중학교에서 학습부진아를 위한 자료교실 교사의 경험도 쌓았다. 그러한 현장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정서장애아 및 범죄청소년의 전반적인 교육문제를 전공하여 왔고 한국에서도 현장경험을 기초로 하는 비행 및 범죄청소년의 상담교육 내지는 심성 훈련 프로그램의 모델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대전 소년원에서 갖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학령기에 속한 소년원생의 교육 및 직업교육은 문교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반해서 한국에서는 정규 학교 이외의 소년원이나 소년복지관의 재반 비행 범죄 청소년의 문제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그들의 교육이나 직업교육 및 재활문제도 교육부와의 연관없이 운영하는 점에서 법적 편중성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보겠다.

실제로 특수 교육 진흥법에는 정서 장애아의 교육을 특수교육적 접근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조항은 있지만 문교부와 법무부 사이의 정책적 합의 단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행 범죄 청소년의 교육을 책임질 소년원 교사는 기본적인 교육 및 심리교육적 이론에 접해 보지 못한 관계로 인간 관계 훈련이 별로 없는 일반 공무원 채용의 과정을 통해서 충당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소년원장들은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소년원의 교육 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 비행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적, 교육 재활적 접근은 거의 무시된채 상당한 수의 청소년들이 더욱 흉악한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정책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필자의 소리는 무력한 것임을 인정하

면서도 요즈음의 점점 더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 양상을 볼 때 소년원에 수감된 미성년 범법자들을 위한 인성교육 및 인간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한다.

Redl(1960)은 Detroit시의 부녀회의 요청과 지원을 받아서 심한 정서장애를 가진 비행 범죄 청소년들의 치료 교육을 위한 pioneer house를 하나의 모델로 운영했다. 이 기숙학교에서 일상 생활을 통한 그룹상담을 받게된 청소년들은 부모나 다른 성인들로부터 잔인한 대우를 받았거나 방치되어 버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형제들이나 가족들과 늘 싸움을 하거나 격한 감정을 조절할 능력을 상실한 정도로 증오에 가득찬 청소년들이었다. 학교 생활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무단 결석, 폭행, 도둑질등 온갖 범법 행위를 일삼는 혼란스럽고 안정감을 완전히 상실한 야생마와 같은 거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원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들 즉 동일시 할 수 있는 성인(identified adult), 가치관과 행동의 표준을 보여 줄 수 있는 성인으로부터의 사랑과 격려, 동료와의 인간관계 경험, 부모 이외의 지역사회에서의 소속감 형성, 붕괴되지 않은 가정 생활, 그리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경제적 뒷받침 등이 거의 무시되고 주어지지 않은 "구멍 뚫린" 아동기를 거쳐서 성장한 불행한 청소년들이었다.

Redl은 이 청소년들을 "증오하는 아이들(children who hate)"이라고 서술했고 캠프생활과 같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치유와 구조적이고 고무적인 상담자들의 노력을 토대로 자아개념의 지원, 치료적 접근 방법, 표면상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조정(antiseptic manipulation of surface behavior), 유머를 통한 긴장이완(tension decontamination through humor), 억압하지 않은 생활 공간속에서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견제해 주기(proximity and touch control), 체면을 살려주기 위하여 실수를 묵인하는것(planned ignoring), 긴장을 풀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routines which relax), 자신의 파괴적 충동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타인(adult who protect them from self destructive violent behavior), 조건 없는 애정으로 만족과 기쁨을 경험시키기(rich, flow of tax-free love and gratification grants)등의 부모 대역을 통한 건전하고 고무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가는 방법이다. 상처 받은 곳에 약을 바르고 봉대를 감아 주듯이 상처 받은 심리적 아픔과 실패의 경험을 사랑과 기쁨, 성취와 만족의 경험으로 시켜 주는 “total milieu approach”를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Nicholas Hobbs(1966)는 정서장애 아동의 치료교육으로 Project Re-Ed라는 기숙 학교 유형의 camp program을 개발하였다. 두 상담교사가 한 팀이 되어 8명의 정서 장애 아동과 매일 24시간 같이 생활하며 보충교육, 생활 교육, 자연 속에서의 치유적 캠프 생활을 통한 모델이 되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사회 사업, 심리학 또는 특수 교육으로 석사 과정을 마친 상담교사로서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학생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으로 정서장애아에 대한 이론적 이해, 사랑할 수 있고 수용적이며 삶 전체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를 선택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들이 석사과정에서 택한 과목들은 정서장애 아동의 특징, 특수교육 방법, 학생들의 읽기, 쓰기, 셈하기등 학과목의 결점을 진단 평가하고 보충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개별교육(individualized educational approach)의 훈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치료받는 학생들은 대개 학교에서 자기 학년보다 3, 4학년 뒤떨어진 학습 부진아이며 배척받고 나쁜 습관을 배워왔으며 애정 결핍으로

인한 비뚤어진 생활관을 가진 아동들이었다. 약 9개월동안 이 기숙학교에 머무는 동안 다니던 학교의 담임교사와 밀접한 연락을 통하여 원격학급에 환급하기 위해 필요한 보충교육을 받으며 주말에는 꼭 집으로 돌려 보내서 가족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파괴적인 가정이라고 해도 아동으로 하여금 배척하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긍심과 자기 처신의 방법을 훈련시킨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비행 범죄 청소년들을 위한 기숙 학교에서의 상담교육 또는 교정교육의 내용은 Maslow의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에 기초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삶에 대한 안전이나 안정에 대한,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존경과 자존에 대한,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Maslow에 의하면 인간의 내적 본성은 본래적으로 악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성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으로 선한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인간의 선한 내적 본성이 좌절되었을 때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인간은 사랑받을 수 있으며 고상해질 수 있고 창의적일 수 있으며 최고의 가치와 포부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이 자신이 천부적으로 타고나온 재능과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인간상을 maslow는 “자아실현의 인간(self actualizing person)”이라고 명명했다(이 혜성, 1982, p. 7).

사랑 받거나 교육받을 능력과 가치를 상실한 비행 범죄 청소년들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 교육의 원리는 위에 말한 Maslow의 인간 존엄적 사상에 기초할 때에만 가능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Glasser의 Reality Therapy

1962년에 California주의 Santa Clara Valley에 세워진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된 Reality Therapy는 William Glasser가 제시한 것으로 심성발달 훈련에 효과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주정부의 추천으로 이 기관에 온 소녀들은 주로 몇년간의 주보호관찰소에서 많은 심리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법을 어겨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게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책임있는 삶을 위한 변화에 대해 동기유발이 어렵고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간에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므로써 현실을 부정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실제 세계의 구체적/비구체적 양상을 성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Reality Therapy라고 했다. 그들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내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해야함을 인식시키고 그들과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어주는(emotional

involvement) 타인과 집단을 제공한다는 접근이다. Glasser는 인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를 첫째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려는 욕구와 둘째로, 자신과 타인에게 가치있다고 느끼려는 욕구라고 보고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타인의 욕구충족을 박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배워야 된다고 보았다. 부모에게서 기본적인 책임의식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담가 또는 Reality Therapist가 세가지의 절차를 따라서 책임감을 배워주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 첫째의 절차는 Involvement로써 상담자는 피상담자가 현실을 직면하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사소한 여건에까지 관여하고 지적하는 일이다. 둘째의 절차는 상담자가 피상담자는 수용하지만 그의 비현실적인 행동은 거부하는 일이고, 셋째의 절차는 상담자가 피상담자에게 현실의 한계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표]

시 간	1일	2일	3일
08:30-10:00	1	1	1
10:00-10:30	휴 식		
10:30-12:00	2	2	2
12:00-13:30	점심 및 휴식		
13:30-15:00	3	3	3
15:00-15:30	휴 식		
15:30-17:00	4	4	4
17:00-18:30	저녁 식사 및 휴식		
18:30-20:00	★ 5	★ 5	★ 5

★=하루의 순서에 대한 정리 및 결단의 행사

Reality Therapy에서는 태도(attitude)보다는 행동(behavior)에 더 관심을 두고 '왜 그렇게 하니(Why)?' 보다는 '무엇을 하니(what)?'에 관심을 쏟

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호의적이며 따뜻한 인간접촉을 통해서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처방법을 제시하는,

부모대행역할 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제시하는 이 모델은 교사들이 일반 교실에서도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소년원 상담교육 프로그램 모델

법무부 소년과가 지원하는 소년원생을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교육 프로그램은 1회에 3일간 14번에 걸친 집중적인 T-group 형식의 그룹상담으로 매회마다 새로운 12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심리학자나 심리교육자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필자가 대전소년원에서 가졌던 상담교육은 다음에 제시된 표와 같은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었고 각 session은 90분 간이며 30분간의 휴식이 따랐다.

3일간의 프로그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일: 자아개념의 형성을 위하여

제 1 회: 오리엔테이션

주제: 참석자 소개

목적: 그룹간의 친근감 형성

설명: 방향 설명, 자기 노출의 이득

활동: 두사람씩 짝을 지어 대화를 통해 이름, 별명, 취미, 관심거리, 장래 희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토의: 상대방을 그룹에게 소개하며 대화법의 기본예절과 자기 표현상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데에서의 구체적인 취약점을 지적해 주고 교정을 고무함.

평가: 자신의 느낌, 생각, 또는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친근감 및 group dynamic 형성을 장려함.

제 2 회 주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목적: 자신을 개방하는 학습경험

설명: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만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적으로 의미있는 느낌이나 생각을 집단에 내놓았을 때 비웃거나 무시당한다면 자기 노출이 어렵다.

활동: 종이에 쓰기(나의 좋은점, 특기, 발골해 내지 못한 재능, 미운점, 나쁜 버릇, 앞으로 추구할 일, 장래에 성공할 수 있는 일, 어떠한 남편상? 어떠한 아버지상?)

토의: 활동 순서를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각자가 일어나 자기 개방을 하도록 하고 느낌이 어떤지 이야기 해 본다.

평가: 자기 표현을 주저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 해 본 경험이 없다는 원생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도록 group dynamic을 통하여 장려함.

제 3 회 주제: 신뢰감 형성

목적: 참석자간의 우정과 협동성을 피부로 느끼기 위하여

설명: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활동A: 여섯명씩 두줄로 마주 앉아 손을 잡고 한 사람이 그 위에 눕는다. 처음에는 발, 허리, 등, 머리스운으로 가볍게 올려준다. 차례를 바꾸어 계속한다.

활동B: 3명이 한 그룹이 되어 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질 때 두사람이 손을 잡고 받혀 주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볍게 안아 주기.

토의:근육 이완 및 피부접촉을 통하여 그룹간의 신뢰감과 친근감을 경험했는지 이야기 해 본다.

평가:협동적인 우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노력하고 위해 주는 마음을 나누는데서 생긴다.

제 4 회 주제:즉흥 연설

목적:자기 의사 표현 훈련

설명:연설 제목을 쪽지에 적어서 종이 바구니에 집어 넣고 한 사람이 나와서 한 문제를 집어 내어 2분간 즉흥 연설을 한다(1번이 다음의 다른 사람을 차례로 지적한다).

활동:(가능한 제목-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내가 선생이라면...

내가 어머니라면...

내가 6개월만 산다면...

내가 아버지 라면...

내가 소년원 원장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20년 후의 나의 모습은...

내가 김일성이라면...

토의:‘openended question’은 주입식 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솔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라는 것을 인식한다.

평가:성인으로서의 자기 의견, 자기 판단, 및 자기 표현은 개성 있고 주체성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한다.

제 5 회:주제:정리 및 결단의 행사

목적:자아 개념에 대한 이해

설명:자아 개념의 형성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데서 시작되고 의식적인 자기 분석 및 성찰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Maslow의 기본 욕구의 위계를 소개함).

활동A:mosaic 만들기(3명이 한 팀)

i) 성공한 사람을 표현

ii) 실패한 사람을 표현

iii) 완성된 것을 그룹에게 설명해 주기

토의:자아 구현을 위한 성공, 자기의 타고난 가능성을 실제적인 능력으로 개발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활동B:손 씻기(상담자가 물그릇과 수건을 준비하고 원생 한사람씩 손을 씻겨 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며 결단의 의식을 갖는다)

평가:조용히 상담실을 떠나게 한다.

제 2 일:가치관의 정립을 위하여

제 1 회:주제:어른에 대하여

목적:나름대로의 가치기준을 놓고 주위의 어른들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

설명:기성 사회, 가정과 사회적 부조리, 인간관계의 파괴 반면에 자기 회생적 부모, “선한 사마리아인”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활동:벽에 갱지를 붙이고 존경이 가는 어른과 존경할 수 없는 어른에 대해 삼화로 표현하기(두 그룹으로 갈라

서 각기 두가지 작품을 만들기)

토의:삽화의 내용과 그리는 동안의 감정에 대해서 서로 대화한다.

제 2 회:주제:부모에 대해서

목적:대화와 사고에서 나타나는 부모와 자식간의 세대차

설명: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기본적인 필수조건을 베풀어주고 자식은 그 사랑을 받을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해갈 책임을 각각 주고 받는 사이이다.

활동: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 네 그룹이 상황극을 기획해서 연출한다(신사복 입은 아버지, 앞치마 입은 어머니, 아들). 상황은 아들의 학교 성적 문제, 아버지의 과음 문제, 용돈 문제, 나쁜 친구 사귀는 문제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여 각 그룹이 대사와 연기를 준비하여 연출한다.

토의:다른 그룹의 상황극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부모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해 본다.

평가:후백논리적인 편견은 부모와 자식간에 심한 갈등과 물이해를 가져다 준다.

제 3 회:주제:즐거운 경험

목적:즐거웠던 경험을 되살려서 그 기억을 삶의 청량제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

설명:인간은 즐거웠던 경험은 오래 기억하지만 즐겁지 않았던 경험은 잊어버리는 망각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가장 미세한 긍정적인 경험이라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효

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활동A:한사람씩 차례로 동료들 앞에서 즐거웠던 경험을 논리적으로 조리있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

활동B:오락을 통해 유쾌한 감정을 경험한다.

i) 인간 철도를 만들어 한 사람씩 차례로 그위를 굴리기

ii) 두 사람이 등 맞대고 일어나기

iii) 다리 잡히고 손으로 걸어가기

iv) 쪽지에 적힌 맹인, 앓은뱅이, 절름발이, 노인의 걸음 걸이를 흉내내기

토의:소외된 자, 약한자, 장애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유쾌한 감정은 의도적인 노력으로써 조성할 수 있음을 상기시킴.

평가:“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제 4 회:주제:이그러진 모습

목적:참회나 후회할 만한 사건과 경험에 대해 표현이 어렵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황을 피부 감각으로 다루어 봄.

설명:구겨진 종이, 깨어진 병, 버려진 병마개, 시들은 풀잎을 보여주며 그렇게 팽개쳐 버려진 정리되지 않은 자신의 아픈 감정을 표현해 보자.

활동:(밀가루와 소금을 같은 양으로 섞어서 원생들 앞에서 물 반죽을 하여 clay를 준비함) 한 응큼씩 떼어주고 증오의 표현, 슬픔, 실패, 사랑, 성공의 표현 중에 두가지씩 선택하여 작품을 만들도록 한다.

토의:작품을 만드는 동안 자기의 감정이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

도록 상담자가 각자에게 접근하고 조용히 경청한다.

제 5 회:주제:정리 및 결단의 행사

목적:후회스럽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설명:사람에게는 결단이 가능하고 결단에 의해 자기의 습관적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짠 발짠, 스쿠루지 등 문학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아는 바를 묻고 토의함.

활동A:풍선을 불어서 그 위에 자기가 버리고 싶은 사건이나 기억을 기록해 두고 다음날 밖에 나가서 풍선을 날려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활동B:각자에게 촛대를 들게 하고 상담자가 먼저 점화하며 가치관의 정립이 성공적 삶의 열쇠라고 말한 후 누구든지 결단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점화하고 자기 결단의 시간을 가지도록 의식을 갖는다.

토의:촛불을 끄고 상담자는 원생과 차례로 악수하며 조용히 거처로 돌아가게 한다.

제 3 일:사회 적응을 위하여

제 1 회:주제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 알기

목적:마음의 눈을 열어 꾸밈없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서로 솔직하게 평가해 준다.

설명:편안한 자세로 앉아(요가 식으로) 눈을 감고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체 각 부위를 차례로 느껴 보고 생각을 정리한다.

활동:두사람씩 짝을 지어 앉아서 상대에게 꼭 고쳐 주고 싶은 점을 등에다 손가락으로 쓰고 그 말을 확인시킨다. 그 다음에는 상대에게 권하고 싶은 점을 등에 써주고 차례를 바꾸어서 활동을 계속한다.

토의:상대가 자기를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의 장점을 장려해 주고 단점을 부드럽게 지적하여 고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친구를 가지는 것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자산이다.

평가:친구에 대한 관심이 깊을수록 장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제 2 회:주제:스무고개

목적:그룹의 친목과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게임을 한다.

설명:두 그룹으로 갈라서 각각 단장을 내고 주어진 상황을 말없이 행동으로 표현하여 알아 맞추기. 내용에 가까운 표현을 할 때에는 “뜨거워”라고 반응해 주고 상관없는 표현을 할 때에는 “차가워”라고 반대 팀이 반응해 준다.

활동:(내용-굴다리 아래서 본드 불기, 바람잡고 소매치기, 언제나 마음은 태양, 귀구멍에도 별 들날 있다, 아니면 굴뚝에 연기 날까, 승농도 위 아래가 있다)

토의:문제를 함께 풀어 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삶의 신선함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회:주제:“아낌 없이 주는 나무”

목적:받는 생활보다 주는 생활이 더 기쁘고 보람 있다.

설명:한 소년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한 그루의 나무는 자기의 모든 것을 소년에게 줌으로써 행복을 느꼈지만 소년은 받을수록 더욱 욕심만 커졌다.

활동:이 이야기의 진행을 그림으로 표시한 그림들을 차례로 벽에 붙이고 한 사람씩 차례로 그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적도록 한다.

토의:원생들이 만든 이야기와 원래의 이야기를 읽고 비교하며 주는자의 기쁨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제 4 회:주제:자연과 운동을 통한 사귀

목적:방에 갇혀 있던 12명과 운동장으로 나가서 소년원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고 운동을 같이 한다.

활동A:전날 준비해 두었던 풍선을 하늘로 띄워 보낸다.

활동B:두 그룹으로 갈라서 배구시합을 한다.

토의:풍선을 날려 보낸 소감을 나누고 스포츠를 즐기려면 규칙에 따른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규칙에 따른 연습이 필요하므로 소년원의 생활을 그 연습기간으로 삼고 성의있게 삼도록 권장한다.

제 5 회:주제:자기 성찰과 결단

목적:12명의 원생을 차례로 개인 상담하기

활동:상담실에서 원생을 한 사람씩 만나서 3일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느낀

점이나 자기 성찰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토의:상담자는 주로 원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반응해 준다.

3. 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첫번 orientation은 이름을 익히고 긴장을 풀기 위한 근육 이완을 통하여 rapport형성을 우선으로 한다(12명의 원생과 카펫이 깔린 넓은 방에 등글게 둘러 앉아 진행되는 동안 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밖에서 지키고 있다).

-원생들의 학력은 국졸에서 고졸까지 고르지 않고 한글을 익히지 못한 원생도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이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었다.

-매일 3번째 프로그램은 점심후 피로해지고 의욕을 잃기 쉬운 시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 사이에 30분간의 휴식 시간에도 원생들은 상담자의 걸을 떠나지 않고 대학원생들의 인도로 기타를 치며 음악을 즐기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와 끝날때 마다 노래를 부르며 의욕과 결속을 장려했다.

-추상적인 개념을 다룰 때도 구체적인 매개체를 사용하여 사고의 수준이 미숙한 원생에게도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각 원생의 장점을 발견하여 이를 지적해 주고 동료간에 서로 도우며 좋은 우정이 싹트도록 노력했다.

3. 결 론

“Child is the father of man”이라고 영국의 자연파 시인 Wordsworth는 말했다. 한 가정과 사회가 지속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성숙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건전하고 성숙된 복지사회를 후손들에게 대물림하려면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성숙된 인격과 책임성있는 삶의 훈련장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오늘의 비행범죄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의 부조리적 요소를 분석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긍할 때 비로서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국민적 결속과 정책적 시도가 뒤따르리라고 생각한다. 해체되어가는 가정의 기능, 성적위주의 교육방법때문에 생기는 청소년들의 학교에 대한 혐오감과 학습부진 및 지역 사회에 팽배하는 무규범화 현상은 기성세대의 산물이며 이러한 사회환경을 온상으로 삼고 우후죽순과 같이 증가하는 독버섯과 같은 청소년의 비행범죄는 기성세대가 다스려야 할 과제이다.

가정에서 소외되고 학교에서 배척받음으로 실패의 경험을 반복해온 비행 범죄 청소년들에게 자아개념의 형성, 가치관의 학습,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사회인이 되는데 필요한 적응의 훈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삭막한 소년원에 격리되어 있고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난폭한 비행범죄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선한 내적 본성이 좌절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으며 고상해질 수 있고 창의적일 수 있으며 최고의 가치와 포부를 추구할 수 있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가능성, 그리고 잠재력을 일시적인 유혹에 의해 탕진하지 않도록 보호 관찰해주는 가정과 사

회가 되어야겠다. 기술개발을 위한 교육 못지 않게 그들의 내면의 성숙을 위한 인성교육, 상담교육, 개별교육적 접근이 병행할 때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성숙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남승, 청소년비행. 범죄의 환경적 요인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2.
- 김병성, 중등학교 자율화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종합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81.
- 김광문, 일련의 자율화 조치에 따른 청소년 비행 방지책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청소년 지도육성회, 1982.
- 김현순, '교정 및 장애청소년의 실태와 사회적 인식', 청년연구, 제8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5.
- 김영란, '개정 소년법에 대한 일고', 청소년범죄연구, 제4집, 법무부, 1987.
- 김신일 외. 청소년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연구. 현대사회연구소, 1983, 7.
- 김미진, 선도조건부 기소유역 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연구논문, 1988.
- 김기두, 한국소년범죄연구. 서울 박영사, 1983.
- 심음철, '일탈행동과 비행', 청소년심리학, 중앙적성 출판사, 1988.
- 서울소년감별소, 비행소년감별의 실태와 개선방향안. 1981.
- 이형득, 집단상담의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1989.
- _____,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1989.
- 이혜성 역, A.H. Maslow, 존재의 심리학. 이대출판부. 1982.
- 윤덕중, 범죄와 소년비행학. 박영사, 1988.
- 전숙자, 도시청소년의 일탈 행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 최재석, 소년비행과 가족유형. 행동과학연구 제4권.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1979.
- 최창영, 집단상담과 소년원생의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9.
- 청소년백서, 1980-1990 법무부.
- 차강석,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청소년범죄 연구, 제4집. 법무부, 1987.
- 한국카운슬링연구소, 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성원사, 1987.
- Amos, W.E.(Ed.), Counseling the Disadvantaged Youth. Prentice Hall, Inc, 1968.
- Andry, R.G. Delinquency and parental pathology: A Study in forensic and clinical psychology. London. Methuen, 1971.
- Bowlby, J. Maternal Care and Mental Health. Geneva: W. H.O. Monograph Series, No. 2 1966.
- Cohen, A.K.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Glencoe. The Free press, 1966.
- Cusson, M. Why Delinquenc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3.
- Cloward, R.A. & Ohlin, Delinquency and Opportunity. NY: The Free Press, 1960.
- Hobbs, N. Helping Disturbed Children: Psychological & Ecological Strategies in H. Harshman (Ed.), Educating the Emotionally Disturbed. NY: Thomas Y. Crowell Co. 1969.
- Miller, W.B., Lower Class Culture as a Generating Milieu of Gang Delinquency. Journal of Social Issues, 1958, 14, 3, 5-19.
- Redl, F. & D. Wineman, Controls From Within. Ill. The Free Press, 1960. Sutherland, R. & D. Cressey,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 J.B. Lippincott, 1952.
- Lewis, D.O. & d.a. Balla. Delinquency and Psychopathology, NY: Grune & STRATTON, 1976.
- Weber, G.H. & D.A. Balla. Delinquency and Psychopathology. NY: Grune & Stratton, 1976/
- Toby, J. The Differential Impact of Family Disorganization. Am. Soc. Review, 1957, 22, 505-512.
- Rutter, M.(Ed.) Maternal Deprivation Reassess. Penguin BOOKS, 1972.
- Iama, E. & S. Lubeck. Explaining Delinquency: Construction, Test & Reformation of Sociological Theory. Mass. Heath. 1977.
- Arther M. Horne & Thomas V., Sayger, Treating Conduct and oppositional Defiaut Disorders in Children. NY: Pergamon Press, 1990.
- Erik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Y. Norton, 1963.
- William Glasser, Reality Therapy, NY. Harper & Row Palliskes, 1965.
- Diana Baumrill Chill care practices auteceding Three patte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967, 75, 43-88.
- Abraham Maslow. 이해성 역. 存在의 心理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1982.

Abstract

A Study of the Emotional Development through Human Interaction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A Counseling Program for Such Development

Hyunsoon Shin—Kim

Ewha Womans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present two major concerns: first, to review the literatu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human interaction factors related to the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and second, to present a counseling model for such development.

It reviews three main theories related to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through human interactions, mainly Maslow's hierarchy of needs, Erikson's 8 Ages of Man, and Baumrind's 3 Patterns of Parenting. These theories jointly emphasize the significant role of the parents in nurturing healthy emotional growth, realistic self-assessment and self-actualization among children.

They further define the specific responsibilities of the parents in satisfying the basic needs of their children, without which their emotional growth will be jeopardized.

Consequently, it was stated that the adolescent delinquency and the behavior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in general, are the results of poor interactions betwee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nd/or children and their 'significant others' in each stage of their emotional development.

To ensure a healthy experience of human relationship among the children with behavior and/or school problems and the delinquent adolescents, the paper presents a counseling program to be used in schools or in Boys' Town. The program can be applied to various programs in dealing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have been neglected by their parents, disenchanted by school and lost directions and meaning in their lives in general.